

[기획]

■ '국제 노인 요양병원·요양시설' 세미나

"요양서비스 평가 시스템 도입해야"



실버 가운데

박정희



실버 박람회 '건강 체크' '2008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가 지난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부대행사로 마련된 건강 점검 코너에서 혈당을 체크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노인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 요양보험 제도가 지난 7월 도입돼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장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방문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차가 너무 크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65세 노인 가운데 44%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시력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23%의 노인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청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29일까지 광주국제실버박람회 행사 일환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노인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세미나에서는 노인 복지관련 전문가·실무자들의 다양한 논문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은 주요 발제자들의 논문 내용 요약.

◇'장기요양 서비스 질 평가와 시설운영'(박종연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연구센터장)=현재 장기요양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차가 커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양과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요양급여는 일정한 데 반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설비·인력 수준은 편차가 너무 커서 소비자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보험제도의 조기정책을 위해서는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가 결과를 보험급여에 적절히 반영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 요양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력·서비스인프라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과정 등을 점검함으로써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유도하는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점진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생활 만족도 등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평가지표 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등 기

서비스 편차 크고 전문성 떨어져 부작용

독거·빈곤 노인 등 취약 계층 건강 열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특별 관리를

다.

또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시력장애를 겪고 있고, 2명은 보청기 없이 생활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 계층간 건강 격차도 심각해 독거노인,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의 기초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 질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건강 실태에 대한 통계기반으로 구축되지 않아 노인건강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한계가 있다. 또 공공보건소의 경우 인력난에 업무포화로 신규정책수립이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향후 점진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생활 만족도 등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평가지표 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등 기

는 저기질환(고혈압, 당뇨병)에 관리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다. 노령기는 1차(건강증진) 예방보다 2차(조기발견), 3차(기저질환 관리) 예방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오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제3차 건강증진종합계획(2011년~2020년)은 노년기를 포함해 전 생애주기로 광범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한 부문별 주요 검토과제에는 암검진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 5대암 검진비용의 본인 부담을 오는 2010년까지 20%~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일반 건강검진 체제도 개편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1차 검진의 진찰항목에 중성지방, HDL(고밀도)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근육이 분해해 생기는 노폐물) 등 주요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오는 2010년에는 노년특화형 건강검진도 도입될 전망이다. 균형격차, 노인 우울증, 비만현상과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검진내용에 포함시킨 특별검진을 실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치매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눈·귀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년기 다방도 질환 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경매투자상담/권리분석
수익성분석
금융, 세무상담



인베스트 경매컨설팅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0 2층 (법원정문 앞)

문/의/전/화
062)236-0900전문법률 상담
변호사 나봉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아파트

소재지	면적	김정기	최저가	비고
부산동 현관에나빌	7층 59	3억2천	최저가	
봉산동	7층 31	9천300만	6천50만	
문암동	9층 20	4천500만	3천150만	
화정동 아·편한세상	16층 87	4억8000만	3천400만	
마곡동	7층 18	4천700만	3천20만	
증평동	3층 10	1억1000만	1억900만	
금정동	2층 42	1억4000만	9천800만	
생활동	5층 24	8000만	5천800만	
주상동	11층 24	7천500만	5천250만	
증평동 등부리케이블	17층 53	2억5000만	1억9500만	
봉선동 한국이달리온	1층 39	4억1000만	2억8700만	
백운동 대화백운아트	9층 33	9천600만	6천720만	

▶근린시설

소재지	면적	김정기	최저가	비고
우신동	188/193	10억6015만	5억3689만	근린시설
임대동	362/993	41억7078만	28억5009만	근린시설
증평동	137/219	6억1999만	3억4719만	근린시설
광천동	136/458	13억3525만	5억8819만	근린시설
신민동	213/889	22억6868만	8억3089만	근린시설
신민동	90/387	9억337만	5억589만	근린시설
대안동	287/854	23억1322만	10억6322만	근린시설
오지동	49/51	1억6114만	1억1280만	근린시설

▶오피스

소재지	면적	김정기	최저가	비고
차량동	38.2	7200만	4040만	구립한국대학
차량동	57000	3990만	2억4000만	한국대학
차량동	158.7	3억3000만	2억3100만	로드샵
화정동	40.5	7000만	2510만	금호월드
신민동	76	5100만	2860만	제원오피스텔 12층

▶종가관련시설

소재지	면적	김정기	최저가	비고
차량동	41/58	1억4559만	8천777만	2층주차
임동	143/42	1억3846만	1억284만	단층주택
학동	68/46	1억4098만	6천16만	2층주택
증평동	52/38	8천778만	5천618만	단층주택
마곡동	7층 18	4천700만	3천20만	
증평동	3층 10	1억1000만	600만	
금정동	67/50	2억3144만	1억6200만	5층주택
생활동	149/41	1억1908만	8천35만	단층주택
화정동	625/25	7억2729만	4억728만	2층주택
화정동	134/82	6억536만	2억8360만	2층주택
우산동	47/39	1억2206만	8천444만	2층주택
월산동	55/22	9천847만	4천411만	단층주택
신창동	71/50	2억5835만	1억4468만	2층주택
경동	94/86	1억733만	9천70만	2층주택

▶오피스텔/다세대

소재지	면적	김정기	최저가	비고
차량동	8.8	5500만	3850만	수원
차량동	47.4	3억4000만	1억480만	로진티울피크 2층
차량동	11.6	8000만	4480만	구현드림빌 4층
월산동	13.7	8600만	4820만	동강 6층
운암동	44.9	2억	1억4000만	우동스위트타운 2층
수기동	9.1	4300만	2400만	제일 13층
신기동	25.6	1억1300만	8000만	그로벌리 4층

▶공장

소재지	면적	김정기	최저가	비고
국성동	439/222	9억440만	4230만	동신 30층
화정동	1815/488	6억7520만	4억7270만	동신 28층
화정동	382/226	1억5000만	1억500만	주거복합
화정동	1444/890	10억3500만	7억2500만	월산초안근
화정동	1282/706	12억2400만	6억8500만	금성농공단지 내